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KBS사보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Vol. 720

〈2021 KBS 공론조사〉 국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수신료 인상 찬성 79.9%… 적정 인상액은 3,830원
KBS 최우선 과제는 '경영 투명성 제고'와 '보도 공정성 확보'
공영방송 역할 수행 평가는 '미흡'



5월 22일(토)~23일(일) 이틀간 '숙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2021 KBS 공론조사〉(이하 '공론조사')에서 국민참여단은 KBS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영 투명성 제고'와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꼽았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성 응답은 79.9%로 집계됐고, 적정한 인상 금액은 평균 3,830원으로 조사됐다.

■ 국민참여단 구성 : KBS 공적 책무 부정 응답자 59%, 긍정 응답자 35%… 공정성 담보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국민참여단은 KBS가 전문여론조사업체(한국리서치)가 선정한 2,500명 대상의 기초조사에서 숙의 토론 참여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통해 선정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 KBS의 공적 책무에 대한 부정적 견해 59%, 긍정적 견해 35%, 모르겠다 6%의 응답자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국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 시작 전(1차)과 폐회 후(2차)로 나눠 모두 두 차례 실시됐다.

■ 국민참여단 10명 중 8명, 수신료 인상에 찬성… 적정 인상 금액은 3,830원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 10명 중 8명(79.9%)이 인상에 찬성 한다고 답했다. 토론회 전 실시한 1차 설문조사 72.2% 보다 7.7%p 높은 결과로 숙의 토론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월 2,500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도 12.4%,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도 7.7%나 나왔다.

인상을 찬성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한 인상 금액'에 조사에서는 평균 3,830원이 나왔다. 토론 전 1차 조사(3,256원)보다 574원이 늘어난 액수다. 현재 KBS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요구안을 KBS 이사회에 제출한 상태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적정 인상액과 10원 차이다.

■ "경영정보 투명공개, 시청자 참여 보장", "뉴스 공정성 높이려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조사결과 'KBS가 우선적으로 이행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3%가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청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뉴스를 공정하게 제작해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22.5%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재난 정보의 신속한 전달' 15.8% 순이었다.

뉴스의 공정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팩트체크가 이뤄진 정확한 사실 보도 15%, 뉴스 제작에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 9.2% 순이었다.

■ "공정한 뉴스 제작과 독립적 운영 위해 수신료 인상 필요"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이유로는 공정한 뉴스 제작과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40년 동안 오르지 않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24.9%), 공적 책무에 필요한 재원 확충이 필요해서(18.6%), 수준 높은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서(17.4%)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민참여단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 방향도 제시했다. 응답자의 16.1%가 상업 미디어와는 차별화된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을 주문했으며, 시사·교양 등 공익 프로그램의 확대 11.4%,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제작 8.7%, 소수·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8.1%였다.

■ 공영방송 필요성에는 국민참여단 대부분이 공감

또 국민참여단의 91.9%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답해 공영방송의 필요성에는 거의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6%로 절반을 넘었다. 잘한다는 평가는 42.6%로 나타났다.

〈2021 KBS 공론조사〉 자료

이번 공론조사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만족도는 82.8%로 나타났다.
국민참여단에게 제공한 숙의자료집과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는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S의 새로운 미래' 위해 국민 목소리 직접 듣다

국민참여단 209명, 이틀간 열띤 토론
"신뢰 회복 위해 KBS 내 변화 우선 돼야"… 뒤늦게 국민 의견수렴 나선 KBS 비판하기도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총 14시간 동안 온라인 화상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숙의 토론에는 국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9명의 국민참여단이 참가했다. 국민참여단은 주제별 발제 청취 및 분임토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피력하는 등 KBS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이틀 동안의 숙의 토론 전 과정을 KBS 사보가 밀착 취재했다.

■ KBS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번 숙의 토론 방식의 국민의견 조사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 조정안 심의를 앞두고 시청자로부터 공영방송 KBS에 대한 평가와 새롭게 요구되는 공적 책무 내용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KBS 이사회가 주관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지난 4월 초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로부터 추천받은 미디어 전문가 5명(조항제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위원장),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양정혜 계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으로 구성된 '공적 책무와 수신료 공론화위원회'가 운영 절차의 공정성 및 내용 적절성에 대해 의결·검증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수행했다.

[2면에 계속 ▶]

[▶ 1면에 이어서]

각계각층을 대표해 선정된 국민참여단 209명은 KBS와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의 과정(숙의 과정)을 거친 후, 사전·사후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 국민참여단 209명은 성·연령·지역별 대표성 갖춰

국민참여단 209명은 ㈜한국리서치가 선정한 2,500명의 기초조사 대상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8일간 ㈜한국리서치 소속 전문 전화면접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전화번호를 통해 전국 2,500명에 대해 기초조사(CATI : Computer-Aided Telephone Interview)를 실시했는데, 기초조사 응답자 중 1,000여 명이 토론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KBS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그리고 의제 관련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최종 선발됐다.

■ KBS와 전문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당면 과제 상세히 설명



김상근 KBS 이사장

토론에 앞서 김상근 KBS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국민이 이 방송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이사회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조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인이신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라며,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주십시오. KBS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숙의 토론회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22일에는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 공적 책무에 대한 이해' ▲'더 나은 공영방송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23일에는 ▲'KBS의 공적 책무 확대계획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주제로 KBS와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민참여단은 각 주제에 대한 분임토의를 거친 뒤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모두 함께 의견을 공유했다.

'더 나은 공영방송을 위한 쟁점과 과제'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홍종윤 서울대 SNU 팩트체크센터 부센터장은 '공영방송 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KBS 뉴스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해결 방안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 강화를 제시했다.

두 번째 '공영방송 콘텐츠·서비스의 공적가치와 시청자권익'을 주제로 발표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영방송은 보편성과 차별성을 갖춘 다양한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왜 최근에 공익적 서비스가 축소되었는지, 재원의 문제와도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공영방송의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해 발표했다. 심 교수는 KBS의 공적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후적인 평가도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BS의 공적 책무 확대계획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발표한 임병걸 KBS 부사장은 '신뢰, 품질, 혁신, 다양성, 개방'의 5대 목표와 12대 과제 그리고 57개 세부 실행과제가 담긴 KBS의 공적 책무 확대계획을 설명했다. 임 부사장은 KBS가 더 추진해야 할 것, 필요 없는 것, 새롭게 추진해야 할 것 등에 대해 국민참여단이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의결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참여단 "KBS, 국민의 관심 받기 위한 노력 선행돼야"

주제 발표와 조별 분임토론(209명의 국민참여단을 20개 조로 나눔)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는 양승동 KBS 사장과 경영진, 외부 전문가들이 나서 답변했다. 국민참여단은 KBS가 처음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했지만, 재원의 위기가 오랫동안 누적됐는데 뒤늦게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했다. 무엇보다 KBS가 앞으로 KBS의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계 사정을 고려해 현재 매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참여단은 과거 KBS의 대표적인 방송물이 사라진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며 대하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을 늘리고 저비용·고품격 콘텐츠 개발을 주문했다. 특히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이 끝나고 양승동 KBS 사장은 "이번처럼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참여단의 질책과 격려 모두 회사 운영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 공론조사 결과, KBS 이사회 수신료 조정안 심의에 반영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공론조사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가 82.8%로 나타나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는 모두 국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집 및 확인하는 절차라는 과정은 같지만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직감적인 의견에 가까운 반면 '공론조사'는 학습과 토론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의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공론화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번 숙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 그리고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토론 전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KBS 이사회는 이 권고안을 수신료 조정안 심의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수신료 인상 여부 및 조정금액은 앞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KBS는 지난 27일부터 3주 동안 〈수신료 조정안 대국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 중이며 6월 4일에는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민참여단 공론조사 그 후, 사원 여러분께 듣습니다〉를 진행할 예정이다.

KBS에 바란다 – 국민참여단 주요 제언

이번 숙의 토론회의 백미는 각 조별로 분임토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의견을 발표하는 '전체 나눔' 시간이었다. KBS에 대한 질책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국민참여단이 밝힌 주요 제언을 요약했다.

1조
- "KBS의 지출 내역을 공개해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변화하는 KBS에 대해 시청자들이 알아야 하는 부문은 책자로 발간"
- 9개 지역총국 강의 홀에서 월 1회 시청자 의견 청취 기회 제공, 국민을 위로하고 정서에 도움이 되는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한다"

2조
- "KBS가 제안한 12가지 과제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과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한 단계씩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 이산가족 찾기와 같은 미아 찾기 사업,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무료 OTT 서비스와 실버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편성 필요"

3조
- "KBS가 제시한 12가지 57개 실행사업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공적 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책임지는 시스템 반드시 필요"
- "우리나라 고유문화나 역사를 알리는 프로그램, 해외 공영방송사들 겪고 있는 문제와 KBS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 진행 필요"

5조
- "시청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된 소통하는 프로그램의 부활을 제안한다. 〈개그콘서트〉나 〈콘서트 7080〉 같은 국민 정서를 위로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늘려야"
- "공론조사 상황을 잘 알릴 수 있도록 KBS가 프로그램을 통해 알렸으면 한다"

6조
-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전문가와 국민이 5:5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얻기 바란다"
- "고비용 발생하는 작품에 크라우드 펀딩도 고려해볼 만하다. 클래식·어린이·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늘렸으면 한다"

7조
-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에는 고비용이 필요하다는 고정적인 생각을 버렸으면 한다. 저예산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 노력했으면"
- "수신료를 올려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보다 실시간 뉴스, 저널리즘 방송을 강화했으면 한다"

12조
- "시청자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
- "국민들은 KBS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도록 독려해야 한다. KBS는 콘텐츠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5조
- "KBS 측이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많이 수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입장만 듣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
- "공론조사를 통해서 최종 해결점을 찾을 수 없겠지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16조
- "숙의자료집에서 결론은 수신료 인상인 것 같은데, 조건부 공감이다. 결국에는 KBS가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다"
- "이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2~3년 후 다른 자리에서, 비판과 질책이 아닌 칭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방송사가 되었으면 한다"

19조
-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는 것이 우선순위다"
- "공영방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KBS 회사 입장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KBS가 되면 좋을 것"

기고문

“‘더 잘하라’고 채근만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2021 KBS 공론조사〉의 모든 과정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로부터 추천받은 미디어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에 따라 진행됐다. 공론화위원장을 맡은 조항제 부산대 교수에게 이번 조사의 의미를 들어봤다.



조항제
공적 책무와
수신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부산대 교수)

공론은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기하는 경합적 논변과 충분한 정보에 의해 검증된 여론입니다. 일반 여론조사가 평소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묻는다면, 공론은 숙고와 논의를 거친 후의 의견을 묻습니다. 일반 조사도 중요하지만, 공론조사는 더 중요할 뿐 아니라 정확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상에 쫓기면서 정보도 변변히 없이 ‘예스/노’ 식으로 하는 일반 조사가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는데 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충분한 시간과 유인을 갖고 여러 자료를 섭렵한 후, 같은 처지의 다양한 시민들과 토론을 거치고 난 후, 나오는 의견이라면 아마도 ‘진짜’ 의견일 것입니다.

복잡하면서 다양한 지금 사회에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책,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럴 때, 공론조사는 유용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에서조차 공론조사가 활발합니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이 성행하는데, 대표적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론조사는 대학입시 방식, 기본소득 문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민주화 이후 공영방송은 우리 방송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의 재원인 되는 수신료는 40년째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별개로 기록적으로 수신료가 정체됐던 점은 일견 상반되는 현상이지만, 사실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간 공영방송이 있었지만 기대한 만큼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추론이 그것입니다. 아마도 이 추론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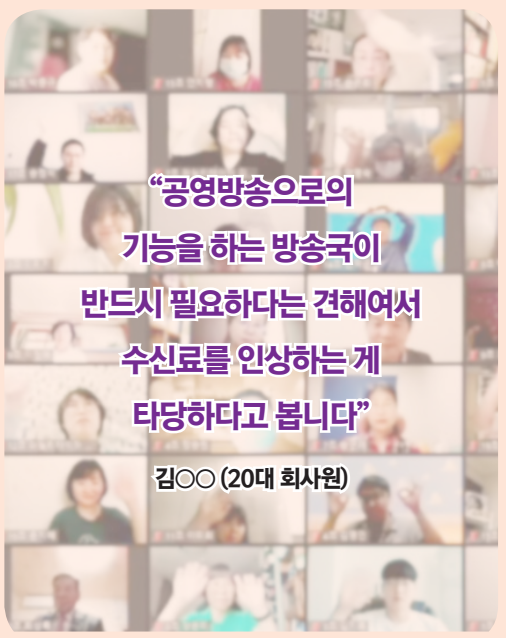
그러나 그러기에 최근의 상황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수신료의 공백을 메워주었던 광고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미디어계 내에서 지상파방송 전체의 비중이 너무 빨리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역시 미증유의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더 잘하라’고 채근만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방송사에서 공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위기가 기존의 합의를 깰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는 시민의 진정한 뜻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정말 40년째 수신료가 정체된 상태로 계속 연장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체계적 표집을 통해 나름의 대표성을 갖춘 시민들(국민참여단)은 먼저 마련한 정보(자료집)를 공부한 후, 시민 사이, 그리고 전문가·당사자(KBS)와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집약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나온 의견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의 의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영방송은 이제야 처음으로 ‘정제되고 고양된 시민’을 만난 것입니다.

I·N·T·E·R·V·I·E·W

이번 공론조사 숙의 토론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2명을 KBS 사보가 만나 소감을 들어봤다.



“공영방송으로의 기능을 하는 방송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여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 (20대 회사원)

Q 국민참여단 참여 계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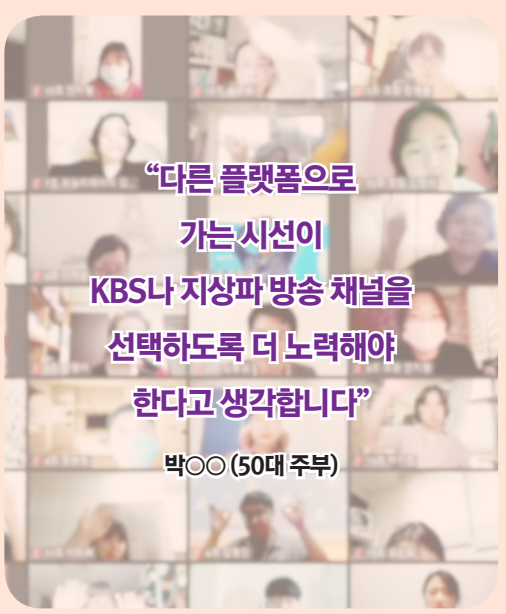
A 국민참여단은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건강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니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하고 싶어 참여했습니다.

Q 국민참여단 활동 소감은?

A 평소 수신료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많은 분이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고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그간 알려지지 않은 부분과 보도되지 않은 내용 등 새로운 사실들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KBS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라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은 미비한 부분이 느껴져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Q 앞으로 KBS에 바라는 점은?

A 일하시는 직원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KBS가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품격 콘텐츠를 강조하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에도 얼마든지 좋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KBS가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후 퇴직자가 많다고 했는데 젊은 층이 유입되어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난 후, 그때 고품격·양질의 콘텐츠를 논의해도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영방송으로의 기능을 하는 방송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여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가는 시선이 KBS나 지상파 방송 채널을 선택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50대 주부)

Q 국민참여단 참여 계기는?

A 요즘에는 유튜브나 여러 방송 매체가 있어 KBS 뉴스를 자주 시청하지는 못합니다만, 수목드라마 〈대박부동산〉의 애청자로서 본방송을 빼놓지 않고 시청하는 등 KBS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Q 국민참여단 활동 소감은?

A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주부로서 최근에는 아이들 교육에 주로 신경을 써왔기에 수신료 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공영방송 KBS에 대해 학습하며,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론조사 과정을 계기로 사회적 시스템이나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어 만족합니다. 국민을 대표해 작은 목소리지만 의견을 펼칠 기회가 주어져 좋았습니다.

Q 앞으로 KBS에 바라는 점은?

A 결론적으로 KBS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토론 과정에서 비판적인 분위기도 있었으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단점을 끄집어내기 보다는 KBS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은 물론 아이들도 유튜브나 케이블을 많이 시청합니다. 방송국은 시청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가는 시선이 KBS나 지상파 방송 채널을 선택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 바뀐 1,2TV 채널 디자인

오늘을 담고 내일을 열다 KBS

빛을 수용하는 매개체
창(Window)
KBS
세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담는 창문의 햇살

빛을 발산하는 매개체
조명(Spotlight)
KBS
희망과 미래를 만드는 조명의 빛

KBS 1,2TV 채널 네트워크 디자인(이하 '채널 디자인')이 확~ 달라진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오늘(5월 3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KBS 1,2TV 채널 디자인은 '오늘을 담고 내일을 열다 KBS'라는 새 브랜드 콘셉트를 담아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따뜻한 '빛(Light)'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빛'이라는 공통된 이미지를 KBS 1,2TV 채널의 정체성에 맞게 재해석하면서도, 그래픽 스타일을 통일해 두 개 채널이 단일 브랜드로 각인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강화했다. 특히 1TV의 슬로건 '오늘을 담는 창'은 세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담는 창문의 햇살을, 2TV의 슬로건 '내일을 여는 빛'은 희망과 미래를 만드는 조명의 빛을 모티브로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



TV와 라디오의 특별한 만남!

여의도동 녹음실 X 싱스트릿

숨 가빴던 한주가 주말권으로 접어들며 나른해지는 금요일 저녁! 서로 다른 음악 세계를 가진 두 뮤지션이 만나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공간이 펼쳐진다.

지난 14일 첫 선을 보인 KBS 쿨FM 〈여의도동 녹음실〉(수도권 89.1㎒)은 최백호와 서도밴드, 정엽과 다비 등 공통점을 찾기 쉽지 않은 뮤지션들이 함께 출연해 그들의 음악 이야기와 컬래버레이션 곡 등을 선보이는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이다. 유지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는데,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비하인드 스토리와 미방송곡 등을 공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동연출을 맡은 김새스라·오귀나 PD는 "완벽한 음원 수준의 마스터링 과정을 통해 아티스트들에게는 자유롭게 음악세계를 펼쳐도 되는 공간을, 청취자들에게는 오직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라디오를 켜고 녹음해가며 새로운 노래를 찾던 그 시절처럼, 라디오라는 매체가 갖는 음악 전문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여의도동 녹음실〉은 6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되는데, 2일부터는 춘천방송총국의 새 프로그램 〈싱스트릿〉과도 협업해 라디오와 TV의 컬래버레이션도 선보인다. 김영경PD가 연출을 맡은 〈싱스트릿〉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여의도동 녹음실〉에서 제작한 연주 실황을 들려주며 시청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코리아〉에 대한 수상과 초청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9월 3일 방송의 날 특집으로 방송했던 〈모던코리아〉 시즌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제7편)'이 국내 방송사 다큐멘터리로서는 최초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의 비경쟁 부문 특별 섹션인 '시네마 리게인드'에 공식 초청됐다.

6월 2일부터 개최되는 '로테르담 국제영화제'는 1972년부터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매년 열리며 유럽 내 4대 국제영화제로 불린다.

한편 〈모던코리아〉 시즌2는 지난 13일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교양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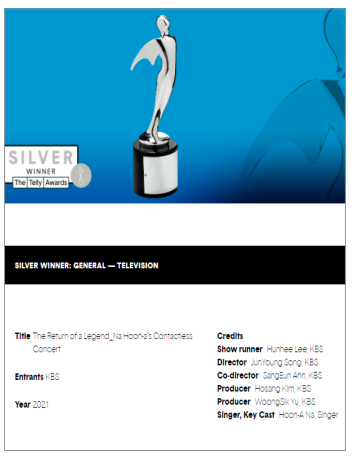
◆ 주요 수상 내역

구 분	부 문	작품명	수상자
151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	〈시사기획 창 – 신도시의 타짜들〉	우한울, 정성호, 이승철, 정새배, 최은진, 조정석, 최재혁, 박상욱 (이상 기획취재팀)
	뉴미디어	〈세계 책의 날 특별기획 – 공공도서관 가보셨습니까〉	김태형, 유지향, 김혜주, 박상욱, 김재현
	영상취재	KBS 대구 〈문화공감 경북 무형문화재 청화백자사기장 편〉	김동욱
	지역뉴스	KBS 전주 〈LH 반칙거래 10년의 고리 추적 연속보도〉	서승신, 오정현, 안승길, 한문현, 김동균
254회 이달의 PD상	TV 시사교양 정규	〈다큐 인사이트 – 다큐멘터리 윤여정〉	이은규, 김선하(작가)
	TV 시사교양 특집	KBS부산 〈김진숙의 마지막 버스〉	김미해, 장유진(작가)
	라디오 특집	〈세월호 아카이브로 다시 듣는 '그 날'〉	박대식, 김자영(작가)
백상예술대상	TV 작품상 (교양)	〈아카이브 프로젝트 – 모던코리아 2〉	염지선, 이태웅, 박건, 임종윤, 정재은(영화감독)
42회 텔리상 (The Telly Awards)	은상 (TV·예능)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송준영, 안상은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42회 텔리상 TV·예능 부문 은상 수상

지난해 '한가위 대기획'으로 방송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프로그램의 우수함을 국제무대에서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연출 송준영, 안상은)는 지난 24일 미국에서 개최된 42회 텔리상(The Telly Awards) 시상식에서 TV·예능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1979년에 미국 뉴욕에서 시작한 텔리상은 한 해 동안 전 세계 모든 스크린에서 상영된 영상작품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국제상이다.

200명이 넘는 회원사 내 주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맡으며 '한계를 넘어서는 스토리'라는 슬로건에 맞게 크리에이티브가 뛰어난 작품 위주로 시상한다.

'고봉순과 함께하는 맛기행 멋기행'은 지면 관계로 이번호는 쉽니다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양승동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전화(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828, 2821
편집인 이경호 취재 안현기 기현정 나은정 최재영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박수연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